

이 되고 있는 의제를 찾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고,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위한 대화의 장 마련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이를 제대로 촉구하지도 않았다. 또한 언론의 가장 중요한 분쟁조정자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의 제시노력도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송사별로 보면 모두 낙제점이나 그래도 KBS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노력을 한 것과는 달리 SBS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다.

<표 13>에서 보듯이 갈등의제를 부각한 기사는 전체의 8.3%에 불과하였는데, 방송사별로 보면 KBS가 12.3%로 가장 높고, MBC가 8.2%, 그리고 SBS가 3.4%로 가장 낮았다. 또한 사태해결을 위해 뉴스 시간에 분쟁의 당사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대화를 시도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간의 대화를 직접 촉구한 기사는 전체의 3.4%에 지나지 않는다. 방송사별로 보면 KBS가 4.1%, MBC가 2.7%, SBS가 3.4%이었다. 그리고 사태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기사는 전체적으로 8.3%밖에 되지 않았는데, 방송사별로는 KBS가 17.8%로 가장 높았고, MBC는 5.5%인데 반해 SBS는 단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표 13> 조정자 역할 비율(%)

	갈등의제 부각	대화 촉구	대안 제시*
KBS	12.3	4.1	17.8
MBC	8.2	2.7	5.5
SBS	3.4	3.4	
전체	8.3	3.4	8.3

* p<.05

V. 맺는말

본 연구는 2000년 들어 6월과 8월에 두 차례 있었던 의약분쟁 사태를 언론이 조정자로서의 역할 노력을 얼마나 하였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번 사태에 대한 텔레비전 방송사들의 뉴스보도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이번 의료계 폐업사태에 대한 방송사들의 관심은 방송사간에 별 차이 없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사안의 중대성을 비추어본다면 당연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방송사당 하루 평균 4.9건씩의 관련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전체 보도 건수에서 이번 의료계 폐업사태기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3%이다. 방송시간량을 보면 MBC가 총 124분 21초, KBS가 116분 26초, SBS가 95분 41초로 MBC가 가장 많았다.

둘째, 이번 사태에 대한 방송사들의 관심은 높았지만 심층적인 보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상적인 보도가 주류를 이루었다. 전체 기사의 90.2%가 정보가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스트레이트 뉴스와 단신이고, 비교적 심층적인 정보를 담을 수 있는 해설, 기획기사는 9.8%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피상적인 보도 경향은 방송사마다 약간 달랐는데, 그래도 KBS가 상대적으로 심층보도를 하였는데, 전체 기사의 15.0%가 기획-해설기사였다.

셋째, 방송사들은 사태 해결을 위한 내용보다는 주로 환자들의 불편과 피해를 중점적으로 강조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기사내용은 전체 보도 건수의 3건 중 1건(33.2%)을 차지하였다.

넷째, 방송사들은 이번 사태를 매우 비중있게 기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관련기사가 톱뉴스로 보도된 것은 모두 20번으로 전체 톱뉴스 중(14일분×3방송사=42) 47.6%를 차지하였다. 또한 뉴스밸류를 상, 중상, 중하, 하 등 4등급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기사의 절반인 50.2%가 상에 해당하는 것만 보아도 의약분업 사태는 매우 비중 있게 취급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과업철회, 정상화”관련 소식은 거의 모두가 톱 뉴스 또는 그에 준하는 비중으로 보도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기사의 90.9%가 상의 뉴스밸류를 나타냈다.

다섯째, 방송사들은 이번 사태를 대체로 중립적으로 보도하였으나 정부보다는 의사들에 대해 훨씬 비판적이었다. 전체 기사의 17.6%가 의사에 대해 비판적인 반면에, 정부 비판적인 기사는 4.9%에 지나지 않았다. 각 방송사별로 보면 비교적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SBS가 이번 사태를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도한 것과는 달리 반면에 KBS는 타방송사들에 비해 의사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장 비판적이었는데, 전체 기사의 24.7%가 의사들에 비판적인 반면에 정부 비판적인 기사는 2.7%에 불과하였다. 또한 입장지지에 있어서도 정부를 옹호하는 기사는 8.2%인데 비해 의사를 지지하는 기사는 1.4%에 지나지 않았다. MBC 역시 KBS와 비슷하였는데, 전체기사의 21.9%가 의사 비판적 기사인 반면에 정부 비판적 기사는 5.5%에 불과하였다.

여섯째, 방송사들은 이번 의료분쟁사태를 지나치게 “환자-의사”, “정부-의사”간의 갈등 또는 대결적 구도로 틀지었다. 기사 내용의 갈등성을 보면 전체기사의 64.9%가 당사자간의 갈등과 대결구도를 그렸다. 이에 반해 화합은 8.8%, 중립은

26.3%이다. 방송사별로 보면 SBS가 이번 사태를 갈등과 대결관계로 가장 많이 묘사했는데 전체기사의 83.1%가 갈등과 대결기사이다. 반면에 KBS는 갈등보다는 중립적인 관계를 더 많이 강조했는데, 전체기사의 43.8%만이 갈등기사이고, 46.6%가 중립적인 기사이다.

일곱째, 이번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인 “의사와 병원관계자”(37.1%)가 뉴스에서 가장 많은 초점을 받았으며, 이어서 “환자나 시민단체”가 26.8%로 두 번째로 많아, 결국 전체 기사의 대부분인 63.9%가 의사와 환자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춘 셈이다.

마지막으로 방송사들은 이번 사태의 전개 과정을 신속하게 보도하는 데에만 열중하였지, 정작 사태 해결을 위한 분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우리 방송사들은 분쟁 해결을 위해 갈등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의제를 찾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고,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위한 대화의 장 마련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이를 제대로 촉구하지도 않았다. 또한 언론의 가장 중요한 분쟁 조정자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의 제시노력도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송사별로 보면 모두 낙제점이나 그래도 KBS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노력을 한 것과는 달리 SBS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방송사들은 이번 의약과동을 매우 관심있고 비중있게 다루기는 하였으나 갈등 당사자들의 입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이해가 부족하였고, 게다가 전문적 지식도 결여되어 이번 사태를 피상적으로 보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환자-의사”와 “정부-의사”간의 갈등과 대결의 틀로만 보도하는 데에만 열중하여 결과적으로 사태해결을 위한 내용보도를 소홀히 하고 말았고,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겠다. 또한 방송사들은 대체로 공정성을 유지하려 노력하였으나 “정부와 의사단체”라는 이분법적인 관계에서 본다면 의사들에게 과도하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 결국 제3자로서의 공정한 자세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 방송사들은 이번 사태와 같은 이익집단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터지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하여야 하겠다.

첫째, 사태의 진행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면서 동시에 좀 더 신중하고 공정한 자세를 취해야 하겠다. 특히 한 쪽 편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나 부정적 보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과 적개심을 심어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사태의 해결이 더딜 뿐만 아니라 사태가 해결된 뒤에도 그 후유증이 상당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사회통합과 공동체 의식형성을 저해할 위험성

이 높다 하겠다.

둘째, 좀 더 적극적으로 당사자들간의 대화를 촉구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물론 뉴스 시간 이외에 여러 시사 토론프로그램을 통해 당사자들간의 토론의 장을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시청률이 가장 높은 뉴스 시간에 양 당사자들을 스튜디오로 부르거나 아니면 3월 방송을 통해 갈등 이슈만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도 시도해볼 만 하다. 혹자는 이러한 뉴스시간의 토론이 뉴스의 포맷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할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고통받고 수십명의 피해자들이 죽어가는 마당에 갈등해결을 위해서라면 프로그램 형식만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다.

셋째로 언론은 당사자들간의 갈등의제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보도하여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조정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줘야 하겠다.